자연의 법문 전하는 '정원 포교'



정원예찬
현진 스님 지음
담앤북스 / 1만7200원

자연의 법문 전하는 '정원 포교'
정원 가꾸며 느낀 사유와 깨달음
"지금, 당신의 정원이 피어납니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누가 나에게 왜 정원 일에 몰두하느냐고 물었을 때 '정원을 통한 전법'이라 말한 적 있다. 이른바 '정원 포교'라 말하면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데, 꽃과 나무를 가꾸며 자연에 기대어 휴식하고 치유하는 길을 일러 주는 역할이다."

불교계 대표 문사(文士) 현진 스님의 두 번째 '정원 에세이' 〈정원 예찬〉이 출간됐다. 2022년 선보인 〈수행자와 정원〉의 연작으로, 13년째 '위로와 명상'을 주제로 청주 마야사 정원을 가꾸며 느낀 사유와 깨달음을 담았다.

산사에서 정원을 가꾸는 일은 단순히 흙을 만지고 꽃나무를 키우는 것을 넘어, 하루하루를 담박하게 살아내는 수행이자 세상과 만나는 조용한 대화다. 그래서 현진 스님은 꽃과 나무가 '스스로[自] 그러한[然]' 자연의 법문이라고 말한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매서운 추위도 때가 되면 봄에게 길을 비켜 주고, 몰아치던 폭풍우도 다음 날 눈부신 태양에 물러간다. 어김없는 자연의 법칙이자 순환이다.

그러나 정원이 전하는 자연의 법문을 듣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진 스님은 매일 호미로 풀을 솎아내고 회양목을 들여와 촘촘히 심고 새집을 만들어 나무마다 둥지를 틀게 한다. 또 진딧물이 극성일 땐 약을 치고 은행나무에 매달아 놓은 그네를 손보고 주변 낙엽도 긁어낸다. 그러니 매일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작업복 차림으로 지낼 수밖에.

이렇게 정원 일로 몸이 고될 때면 '마당 멍'을 한다. 마당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복잡한 마음과 어지러운 생각이 절로 정리된다. 스님은 "어떤 일이든 집중할 때 사유의 뜰이 넓어지기 마련이다. 그런 전제가 되었을 때 충전도 가능하고 휴식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원 예찬〉에는 현진 스님이 13년간 청주 마야사 정원을 가꾸며 느낀 사유와 깨달음이 담겨 있다. 봄꽃이 활짝 핀 마야사의 풍경. 사진 제공=담앤북스

"늘 탈출하고 싶고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자리가 알고 보면 아름다운 꽃자리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힘들어도 세월의 끝에 서서 보면 그때가 꽃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이 불만이고 시답지 않아도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종래엔 꽃자리일 것이다."

현진 스님의 글은 쉽고 간결하고 담백하다.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느낌 그대로를 꾸밈없이 전달한다. "쉬운 문장으로 남녀노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명문"이라고 말하는 스님의 '명문'과 마야사의 풍경을 담은 사진들로 자연의 법문을 들어보자.

'일타 강사' 원영 스님의 금강경 해설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원영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 1만8000원

'불교' '반야심경' 이어 세 번째
"핵심은 '상(相)' 취하지 말라"
'마음 비우는 법' 알려주는 경전

'이제서야 이해되는' 시리즈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하는 '일타 강사' 원영 스님이 이번엔 〈금강경〉의 세계로 안내한다.

전 세계 불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경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이기도 하다. '소의경전'이란 각 종단의 근본 사상을 담고 있는 경전을 말한다. 그렇다면 〈금강경〉에 담긴 핵심 가르침은 무엇일까?

"〈금강경〉의 핵심은 말하자면 '상(相)을 취하지 말라(불취어상, 不取於相)'예요. 상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건 편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놔라,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보는 것도, 내가 가진 생각도,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즉 집착하는 것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죠. 〈금강경〉에 공(空)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공 사상의 대표적인 경전인 이유입니다."

이어 원영 스님은 "존재가 공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전이 〈반야심경〉이라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공하다'는 것을 아는 인식론적 공을 이야기하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라며 "〈금강경〉은 세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어떻게 마음을 비워야 하는지 알려준다"고 말한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시청했을 BBS TV 프로그램 '원영 스님의 불교대백과' 중 〈금강경〉 강의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회에 달할 만큼 인기 영상이다. 그만큼 〈금강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뜻이자, 스님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금강경〉의 핵심을 짚어 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은 2시간짜리 영상에 다 담을 수 없었던, 한 걸음 더 들어간 강의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설명한다"는 스님의 강연 스타일은 그대로 담되, 경전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본다.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설명이 아닌 일상 속 쉬운 언어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사용했다. 또 복잡하게 느껴질 만한 개념은 표로 정리해 이해를 돕는다. 책을 읽기 전 불광미디어 유튜브에 게재된 신간 소개 영상도 참고할 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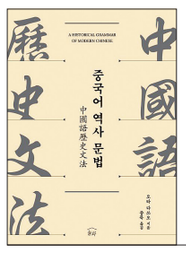
전작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와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이 불교 공부를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친절하면서도 재미있게 전했던 것처럼, 이 책은 따뜻한 설명으로 〈금강경〉에 담긴 지혜를 알려줄 것이다.

저자 원영 스님은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하나조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계종 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과 교육아사리, 교육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청룡암 주지로 BBS불교방송 '원영 스님의 불교대백과' 진행과 칼럼 연재 등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수령 기자

원영 스님의 책소개 영상 바로가기▶

불전 한어 해석에 필요한 문법서



중국어 역사 문법
오타 다쓰오 지음 / 종묵 스님 옮김
눌와 / 4만5000원

중국어 문법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고찰한 책이다. 일본의 중국어 학자 오타 다쓰오가 1957년 쓴 책으로, 일본 학자의 저술임에도 중국 베이징대학 중문과 교수들에 의해 베이징대학출판사에서 출판될 만큼 정평 있는 문법서다. 우리말 번역은 종묵 스님(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이 맡았다.

그간 중국어 문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불전 한어를 포함해 전체 중국어 문법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1부는 서론으로 현대 중국어 문법의 개요를 간결히 정리하고, 2부에서는 중국어 문법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다룬다. 거시적인 문법 체계뿐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된 개별 어휘 사례를 다양하게 다뤘다. 단, 현대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고대어만의 문제는 대부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규갑 연세대 중어중문과 명예교수는 추천사에서 "60년 전에 출간된 책이지만 고대문법과 비교를 통해 현대문법을 설명함으로써 문법 전반을 통시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중국어 문법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의의를 짚었다. 통상 문법 연구는 공시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성과도 많이 축적되었으나, 통시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번역을 맡은 종묵 스님은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로,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하나조노대학에서 중국불교와 선불교를 전공해 학위를 취득했다. 하나조노대학 재외연구원, 베이징대학·칭화대학 방문학자를 지냈으며 주요 논문으로 「불전한어의 시급한 새로운 인식」이 있다.

스님은 일본 유학 당시 이 책을 접하고 우리말로 번역되길 기대했으나 여의치 않자 직접 번역을 시작했다. 초벌 번역 후에도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여러 인연으로 가까스로 이번에 출간이 성사됐다.

이규갑 교수는 "종묵 스님은 일본 학자의 시각과 중국 학자의 관점을 통합하고 한국인의 생각을 더해 중국어법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연 학자"라며 "그런 의미에서 스님이 중국어법학계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종묵 스님은 "〈중국어 역사 문법〉은 예문에 많은 불교 한문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근대한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인 〈조당집〉이 빈번히 인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출간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인문학 여러 분야의 한문자료를 보며 문장 해독에 어려움을 겪을 때 곁에 두고 자주 살펴보게 될 책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기대했다.

여수령 기자

"짧은 인생에 주저할 겨를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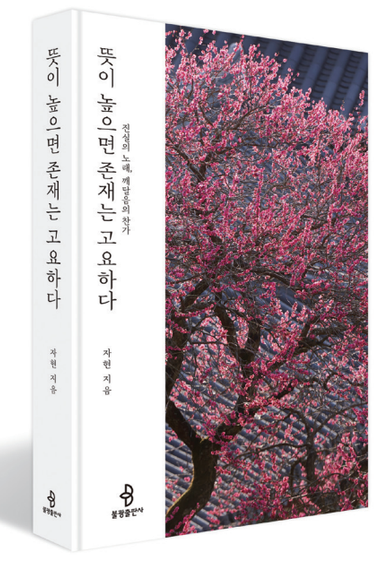
이 우주, 모든 존재를 위한 진실의 노래
강직한 지혜와 용기를 담은 깨달음의 찬가

다시 한 번, 진정한 자유를 향해!

성聖과 속俗을 오가며 깨달은 세상의 이치를
감각적인 사유의 언어로 길어 올린
자현 스님의 두 번째 감성 법문

한 수행자의 진지한 자기 고백은 돌아서면
잊게 되는 멋들어진 힐링의 문장이 아니다.
대신 단단한 바위와 같은
강직한 지혜와 용기의 말이다.
그로써 험한 세상의 풍파에 멈춰선
우리를 다시금 전진하게 하는 것이
이 책에 부여된 소임이다.

자현 지음 | 248쪽 | 양장본(올컬러) | 18,000원



뜻이 높으면 존재는 고요하다

신화 속 붓다가 들려주는 내 인생의 주인공 되는 법!

괴로움과 고통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지키는 단 하나의 이야기!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완벽한 삶의 지혜

붓다의 신화



살아가는 동안 맞닥뜨리는 고통의 순간들.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는
이 순간들로부터 나 자신을
단단하게 붙잡을 방법이 없을까?
천신과 마왕, 욕망을 부추기는
존재들 사이에서 자신의 힘으로
중심을 다잡았던 영웅 붓다.
신화가 된 붓다의 예리한 통찰이
마침내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여 준다.

동명 지음 | 304쪽 | 20,000원

불교 기도문
매 순간 행복해지는 마음 습관
304쪽 | 17,000원



"살다 보면 꼭 한 번은 기도하게 될 때가 있다!"
매일의 일상에서 특별한 순간까지
모든 날을 위한 생활 불교 기도문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